

「아시아 공동체 속의 일본의 석화와 문화」

글쓴이: 진순익

번역: 강지훈

제 7 회 강연에서는 국립 대만대학교(National Taiwan University) 일본어문화학과 교수 이시며 일본연구센터장을 겸임하고 계시는 林立萍 교수님을 모시고 금일의 주제인“아시아 공동체 속의 昔話¹와 문화”라는 주제로 강연이 진행되었습니다. 임 교수님의 강연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언어는 사회문화의 산물로, 문화를 기록하고 인류의 지성과 감정 활동을 지탱하며 마음의 움직임과 관계가 밀접하여 사회를 구성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리하여 언어의 ‘마인드, 이모션, 커뮤니티’ 3 가지 요소가 상호 상생의 관계를 유지합니다.

또한 이러한 언어의 3 대 주축으로는 음성, 문법, 어휘가 있습니다. 그 중 어휘가 해당 언어 사용자의 문화와 민족적 사고 패턴을 가장 잘 반영합니다. 언어는 문화나 사회의 일을 나타내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휘의 특징을 살핌으로써 해당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의 사고 방식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번 수업은 언어와 문화의 관련성이라는 측면에서 일본석화의 어휘 연구를 통해 아시아 공동체 중 일본과 일본 문화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¹ 무까시 바나시 (むかしばなし), 옛날 이야기, 석화(昔話)로 통칭한다.

석화의 어휘 사용에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1. 불교에 관련되어 있는 어휘량과 일본 전통 자연 신앙인 신도교에 관련된

어휘량이 서로 막상막하인 것을 볼 때에 이는 「神仏習合²」이라는

사회적 양상을 반영한 것처럼 보입니다.

2. 등장인물 관련 어휘로 볼 때 남성인물이 대부분이 연장자인 반면에,

여성인물은 상대적으로 나이 어린 아가씨나 젊은 며느리였습니다. 이는

일본의 '가부장제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정직함, 성실함, 지혜로움, 지극한 효성, 근면함, 용감함' 등의 키워드는 서민의 기대를 대변하는 인물상이며, '행복함, 평온함, 즐거움'은 그들이 기대하던 생활상입니다. 또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 친척을 부르는 등 친족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일본 근세 에도시대의 생활상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임 교수는 '어휘와 문화의 관계'에 대한 자신의 연구성과를 수강생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강연은 임 교수님이 학생에게 문화와 어휘의 관련성을 물어본 다음에 일본 저명 사회언어학자인 鈴木孝夫의 『어휘와 문화』(ことばと文化)에서 "문화는 어휘를 통해 표현되고, 어휘가 문화를 표현한다. 문화가 다르면 그 어휘의 표현은 반드시 달라진다"라는 말을 인용하면서 시작하셨습니다. 임 교수님은 일본 석화의 정의에 대해 "석화란 단어가 일본의 고유어휘입니다. 이 어휘는 일본 예전부터 전해내려온 이야기를 지칭합니다. 예를 들어 桃太郎나 浦島太郎과 같이 대만 사람이 한 번쯤 들어본 이야기들이 바로 그 것입니다"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들 전에 모두 동화로 불렀는데 임 교수가 석화와 동화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교수님께서서는 일본 석화 어휘와 모든 일문과 학생들이 관심을 가진 JLPT(일본어 능력 시험)에 사용하는 어휘와 비교하셨습니다. 일본어 교육에서 어휘의 사용도 순서는 초급>중급>고급>입니다. 임 교수님 연구의 첫단계 결론은 일본 석화의 어휘 중에 비 JLPT 어휘가 많지만(약 36%) 중복해서 사용하는 어휘 중에 초급어휘가 가장 많기 때문에 일본어 초급 학습자일지라도 읽기에 도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² 신불습합(神仏習合)이라하여 과거 일본의 정책 중 하나, 불교와 토착신도교의 융합을 도모하는 정책

임 교수는 방대한 양의 일본석화 텍스트와 관련 만화 DVD 에 나타난 어휘를 분석한 결과 그 어휘적 특징을 아래와 같이 밝혔습니다. 가장 많이 나타난 어휘는 인명(주인공), 지명, 神佛명, 도깨비명, 동물명과 자칭사 등 고유명사입니다. 神佛과 도깨비 관련 어휘 중 荒神, 氏神, 稻荷 등 일본 신도교 어휘 외에도 觀世音, 大日如來, 地藏菩薩, 釋迦, 阿彌陀, 和尚, 餓鬼 등 대량의 불교 관련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어린 애들의 읽을거리에 왜 그렇게 많은 귀신, 유령, 요괴 같은 무서운 캐릭터가 등장했을까요? 임 교수는 “요괴가 무서운 존재인 것 같지만 실제로 석화 이야기에서 나타날 때 독자에게 흥미유발의 효과를 가집니다”라는 일본 저명 문화인류학자인 국제일본문화연구센터 小松和彦 센터장의 말을 빌어서 설명했습니다. 이는 인상 깊은 연구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강연을 마무리하며 임 교수는 “석화는 특정 시인이나 작가의 작품이 아닙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이나 장소는 일본인들이 잘 아는 인물과 장소로 나타나는 것이 대부분이며 내용 또한 서민 생활과 아주 긴밀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야기에서 일본인의 ‘인간’ ‘사랑’ ‘자연’ 등에 대한 이해와 상호작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선명한 민족 문화적 특징을 띄고 있습니다. 비록 개성과 예술성의 결여가 지적될 수도 있겠지만 석화 이야기 읽기는 일본 민족의 문화 사유 이해에 도움이 되면서 세계를 이해하고 국제적 시야를 키우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석화 이야기는 일본의 문화적 특징을 이해할 때 가볍게 간과할 수 없는 참고자료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임 교수님 강의 PPT 일부 발췌)

우리는 외국어를 공부할 때에 기초어휘와 특정부문의 어휘 이외에도 해당 언어의 정수를 파악하려면 그 언어로 기록되어 전해 내려온 문학과 문화를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 실제 살아본 사람이라면 42 세가 인생에서 제일 운이 안 좋은 일년으로 반드시 신사에 가서 액운을 풀어야 함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한 편으로 문화를 모르고 일본어만 배우는 사람들이 그 연유를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는 일본어 ‘42 세’의 발음이 ‘죽음의 해’ (しにとし)와 같기 때문입니다. 일본인이나 대만인은 똑같이 4 라는 숫자를 금기시합니다. 이와 같은 문화적 관습을 반영한 단어는 보통 일본어 교과서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본의 아이들은 일본의 석화를 통해서 자국의 문화를 학습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일본어 공부를 할 때 일본의 석화 텍스트를 통해서 교과서에서 배우지 못한 다른 의미의 어휘를 접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옛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을 통해 일본의 역사, 사상과 문화를 이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문성이 있는 내용의 이번 강의를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주셔서 학생들이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